

“논문 쓰며 수행방향 결정”

“논문을 쓰면서 경전에서 벗어나 현대학문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외연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행과 포교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동학사 승가대학 선효스님·최우수상 수상)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한 제5회 전국 승가대학 학인논문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4일 열렸다. 이날 대상을 받은 운문사승가대학 자경스님 등 7명의 학인 수상자들은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논문을 쓰면서 미래 수행방향과 인생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려상을 받은 이진스님(동학사)도 “자료를 보면서 재가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출가동기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학인스님들이 학업을 진행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수업과 운력까지 하루 일과가 팍팍하게 짜여있는 수업 일정상 논문 쓰는 시간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반들의 배려로 두 학기나 소임을 놓은 채 논문작성에만 매달린 학인도 있고, 여름 피아별 운력을 대신 해주는 도반 덕분에 논문을 쓰게 됐다는 학인은 도반에게 수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공모전 수상자들 시상식후 간담회서 진솔한 후일담 공개

상의 영광을 돌렸다.

교과 개편을 단행한 해인사승가대학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어 여타 승가대학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우수상 수상자 범선스님(해인

사)은 “산중에 있다 보니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며 “인터넷 등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국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고 말했다. 다른 학인들도 “자료 수집만 손쉽게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학

인들이 응모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전했다.

수상자들은 장학금을 어떻게 쓸까, 해인사는 후배에게 회향하는 것이 전통이다. 대상 수상자 자경스님(운문사)은 자신의 논문주제와 관련된 단체에 전액 보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문을 쓰면서 불교임종이레 분야가 열악하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즈음 얼마 전 불교생활이레문화원이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저도 그 분야에 동참할 결심이 선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 학인은 “개인적이나 종단 발전에도 도움이 되므로 교육원 차원에서 각 승가대학마다 논문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논문공모전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수행과 교육의 준비과정이 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며 “수상자가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할 의사가 있으면 장학금 지급이나 입학 특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한 제5회 승가대학 학인논문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인들이 지난 4일 교육원 교육부장 집무실에 모여 소감과 단상을 풀어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10·27법난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영담·혜경스님 ‘위촉’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사회부장 혜경스님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무원에서 추천한 영담스님과 혜경스님을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 위촉은 전임 위

원장 원학스님의 사임과 전 사회부장 세영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신임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명예회복심의회는 9일 오후4시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학스님의 사임으로 공석 중인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다술사 관할교구 확인, 중앙종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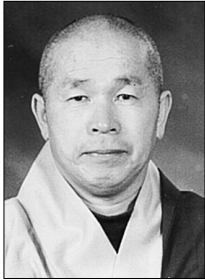
법규위, 심판청구 件 ‘각하’ …신임위원장 ‘성천스님’ 선출

사천 다술사를 둘러싼 조계종 13교구본사 쟁계사와 14교구본사 범어사 간 운영관리권 공방이 중앙종회로 넘겨졌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화법스님)는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0차 회의를 열어 ‘다술사에 대한 관할 교구본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법규 해석 상 교구본사의 관할 구역 및 관할 사찰은 중앙종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중앙종회의 의결을 전제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지방종정법 제3조는 “교구본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 사찰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계사는 지난 7월 법규위원회에 다술사가 쟁계사 관할 말사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성천스님

제출했으며, 법규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판청구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화법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위원장에 간사를 맡아왔던 성천스님을 만장일치로 호선했다.

새 법규위원장 성천스님은 제5교구본사 범주사 부주지, 11교구본사 불국사 부주지, 총주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 3월부터 법규위원으로 활동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계 도움으로 원만히 道政 운영”

김진선 강원도지사, 총무원 예방 이은재 배은희 국회의원도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취임인사를 위해 이날 예방한 김진선 지사는 “불교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도정을 운영해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집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도지사의 열정과 업무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회 여성위원장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배은희 이두화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의 예방을 받았

다. 여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셈(ASEM) 타워 인근에 위치한 봉은사 등에서 각국 정상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봉은사 외에도 강화 전등사와 수원 봉녕사 등을 추천한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선학원 등에 분담금 현실화 총회 재정분과위 40차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재단법인 선학원과 대각회 소속 사찰을 비롯해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항적스님)는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 선학원과 대각회 소속 사찰에 대한 분담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해 현황 파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선학원과 대각회의 이사회에 조계종 총무원 소임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두 재단법인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설사암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특별 분담금 사찰에 대한 분담금 요율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총무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황 파악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분담금 등 재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조계종-진흥원 관계 10가지 질의

중앙종회 ‘진흥원 특위’ 11월30일 공문 발송

관계규명을 위한 질의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진흥원 특위는 공문에 진흥원의 정체성 등을 묻는 10가지의 질문을 담았으며 오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질의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계종에서 추천한 스님의 이사 선임 여부 △정관에 명시한 ‘불교종단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내역 공개 △1980년 10·27 법

해 등이다.

한편 진흥원 특위는 지난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22일 조계종과 진흥원, 불교방송과의 관계를 각각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발제는 진흥원 특위 위원장 의연스님이 맡기로 했으며 조계종과 진흥원, 불교방송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의 관계 규명을 위한 공개 질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는 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 간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대한불교진흥원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 다 음 -

- 1978년 7월 21일 개최된 귀 단체의 이사회에서, 이사 및 이사장 선출 안건에 대해 황산덕 이사가 “다섯 분 이사 중 네 분은 유임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정이 확정되는 대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참여 이사 전원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했으나 이후 그 결의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실행의 이유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는 목적사업을 규정한 정관4조에서 1항에 “불교종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의 설립 이후 ‘불교종단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980년 10·27 법난 이후 귀 단체 이사진이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이사의 해임·선임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내용과 신군부가 귀 단체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만일 개입했다면 그 실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0·27 법난 당시 귀 단체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 실무대책반인 <불교정화기획자문위원회>에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의현스님이 1989년 3월 1일에 귀 단체의 이사에 보선되었고 1995년 2월 22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의현스님의 이사 보선과 사임과 관련한 이사회의 의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의 법적 성격이 종교단체인지 비종교단체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법적 성격이 변동이 있었다면 그 변동의 내용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군법당 건립사업은 사업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 관청이 국방부인 바, 협의 또는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사업개요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재단은 불교종단 및 단체의 행사나 운영비 지원을 통한 간접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2대 황산덕 이사장을 중심으로 재단의 체제를 새로이 정비하여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를 본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제3대 장상문 이사장의 취임과 더불어 불교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재단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제2대 황산덕 이사장 재임 때에 귀 단체의 목적사업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 하며 당연히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 특위는 정관내용의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2대 황산덕 이사장 재임 시 간접사업에 대한 한계인식과 재단 체제의 정비를 다룬 이사회의 의사과정과 의사결정의 내용, 이를 토대로 수립하였다는 장기적인 사업계획, 제3대 장상문 이사장 재임 시 직접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사결정의 내용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의 전·현직 이사, 감사의 명단(재임기간 기재)과 상근임직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불교진흥을 위해 조계종과 귀 단체, 귀 단체와 불교방송은 어떤 관계설정이 바람직한지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3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 특별위원장 의 연